

시연施連칼럼

茶, 아홉 번 더우고 아홉 번 말리고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운공파회장

최근 들어서는 찻잎을 따는 시기가 늦어질 수록 맛은 떨어지나 카테킨 등 유익한 성분이 많아 건강(健康) 유지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끝물차도 인기가 쏠쏠한 편이다.

올해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날씨는 따듯했지만 남도 지방에서 마 저 차나무가 생장하는데 도움이 될 봄비가 흡족하게 내려 찻잎 생장이 좋아서 차맛이 기대가 된다.

봄비가 흡족하지 않으면 차(茶) 맛이 당연히 떨어지고, 차나무는 영하 7~10도의 기온에 노출되면 냉해를 입고 건조한 날씨에는 어린 잎이 누렇게 변하는 특성이 있어 전담 보성이나 경남 하동, 제주 등 알맞은 습도와 따뜻한 날씨가 유지되는 남쪽 지방에서만 재배되어 왔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뇌성산이 겨울 바닷바람을 막아 주고 해풍에 실려 온 습도가 차나무 성장을 도우는 자연여건을 갖추어 저 차나무가 자라기는 하지만 찻잎을 따는 시기가 남해안보다는 늦어 상품가치는 별로다.

경주 남산에도 신라 때부터 차나무가 심어 졌다는 기록이 있으나 역시 남쪽 지방과는 비교가 안된다.

다섯 잎 차(茶)꽃의 꽃말은 영원한 삶과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한다. 꽃말처럼 노란 꽃술을 감싸는 꽃잎 색깔이 어머니의 치마폭처럼 수수하다.

“살아가는 길이 너무 편안하게도 인생하게도 어렵게 살지도 말라”는 해석이 담겨 있으니 고요함(靜)과 화경정적(化敬淸寂)으로 이끄는 데는 차 마시기가 자연 으뜸이다.

차의 종류는 찻잎의 발효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다인(茶人)들이 즐겨 마시는 녹차(綠茶)는 발효를 시키지 않는다. 가마솥에서 구증구포(九蒸九曝: 아홉 번 더우고 아홉 번 말리고)를 통해 찻잎이 가진 타닌성분이 효소에 의해 발효되지 않게끔 한다.

잎이 완전히 마르거나 전 공방이 번식을 통해 발효시켜 후(後)발효차라고 불리는 중국보이차(普洱茶)는 품질이 떨어질수록 곰팡이나 지푸라기 썩는 맛이 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녹차는 맛 향색이 모두 뛰어난 차다.

야생(野生)과는 달리 비료나 농약에 의해 자란 차는 우려내보면 잎이 흐늘거리고 차를 넘겨도 목에 단점이 나오지 않는 등 차이가 나고 뒷맛이 텁텁하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36>



권관현 편집위원장

〈추연집〉은 권용현(權龍鉉, 1899-1988) 공의 시문집으로 45권 15책이다. 공은 자 문현(文見), 호 추연(秋淵)이며, 안동권씨 시조후 35세(世)로 복야공파이다. 부친은 권재직(權載直, 1866-1954)이고, 모친은 초계정씨(草溪鄭氏, 1873-1949)이다.

공은 10세 때 <통감(通鑑)>, <사략(史略)>, <사서(四書)> 등을 두루 섭렵할 정도로 총명하고 영특했다. 시암(是菴) 이직현(李直鉉, 1850-1928)에게 편지를 올려 가르침을 청하자 “10여세의 어린 나이에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이 엄격하고 하는 말이 도의(道義)에 가까우니 어디에서 이런 소년을 얻을까” 하면서 칭찬했다.

그 뒤 각재(覺齋) 권삼현(權參鉉, 1879-1965)·간재(艮齋) 전우(田愚, 1841-1922) 등을 사사(師事)하였다.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학설을 참고하여 태극·음양·동정(動靜)의 이치와 인심(人心)과 도심(道心) 및 사단칠정의 학설을 탐구하고 강론했다. 만년에 태동서사(泰東書舍)를 세운 문생 400여 인을 길렀다. 2012년에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에 창건된 태동서원에 위패가 봉안되었다.

〈추연집〉은 한 면에 세로쓰기로 총 28줄, 한 줄에 32자씩 조판되어 있고, 가운데에 판심(版心)이 있으며, 목차 57면을 포함하여 모두 1730면이다.

권1은 부(賦)·시(詩)이고, 권2-8은 서(書)이며, 권9-11은 잡저(雜著)이다.

권12-15는 서(序)이고, 권16-21은 기(記)이며, 권22는 발(跋)이고, 권23은 상량문(上樑文)이며, 권24는 축문(祝文)이다.

권25는 신도비(神道碑)이고, 권26-28은 비(碑)이며, 권29는 묘지(墓誌)이다.

千枝之秀(천지지수) 천 개의 가지가 무성한 것은 一氣之氣(일기지기) 뿌리 한 개의 기운 때문이며 萬派之流(만파지류) 만 개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도 一源伊始(일원이시) 하나의 근원이 시작입니다 非根之厚(비근지후) 뿌리가 튼튼하지 아니한데도 枝何因茂(지하인무) 가지가 어떻게 무성하겠으며 源之不深(원지불심) 근원이 깊지 아니한데도 曷見流大(갈견류대) 어찌 큰 흐름을 보겠습니까 有赫吾祖(유혁우조) 빛나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吾姓攸出(오성유출) 우리 권씨가 나온 근원이시며 吾姓於國(오성어국) 우리 권씨는 우리나라에서 族稱甲乙(족칭갑을) 갑이라 을이라 일컬어집니다 蕃根發源(삼근발원) 뿌리를 모으고 근원을 일으킨 것이

추연집(秋淵集)

명(墓誌銘)이다.

권30-34는 묘표(墓表)이고, 권35-43은 묘갈명(墓碣銘)이며, 권44는 행장(行狀)이다.

부록에는 공의 행장과 묘갈명이 실려 있다. 행장은 설암(雪岳) 권옥현(權玉鉉, 1912-1999) 공이 짓고, 묘갈명은 인암(忍庵) 박효수(朴孝秀, 1906-1996) 공이 지었다.

공은 1940년 3월 24일에 시작하여 4월 4일까지 족속(族叔) 현암(弦菴) 권재성(權載性, 1890-1955) 및 월헌(月軒) 이보립(李普林, 1903-1972)과 함께 화차(火車:기차)를 타고 대구(大邱)를 거쳐 안동(安東)과 경주(慶州) 등지를 유람하였다. 이때 3월 26일에 안동 태사묘(太師廟)를 참배하고, 비가 내리는데도 오후에 능동(陵洞) 태사공 묘소(墓所)를 참배하였다. 이때 쓴 <동정일기(東征日記)>가 <추연집>권11의 13-23면에 실려 있다.

다음은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 묘소에 제사를 올릴 때의 제문(祭文)이다. 원문은 <추연집> 권24의 8면에 실려 있다.

實自公始(실자공시) 실로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으니 非德非仁(비덕비인) 덕성스럽지 않고 어질지 않으셨으면 曷以致此(갈이치차) 어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佐麗討蕘(좌려토환) 고려국을 도와 견훤을 토벌하시고 報仇宗國(보구종국) 조국 신라의 원수를 갚으셨는데 功則雖著(공즉수저) 세우신 공이 비록 드러나야 했지만 特其一節(특기일절) 다만 그중 하나인 절개일 뿐입니다 厚積薄發(후적박발) 두텁게 쌓고 조금만 드러내셨으니 惟後之豐(후후지풍) 오직 후손이 풍성하게 되었습니까 天燈之陽(천등지양) 천등산의 남쪽 양지바른 곳에 有屹玄宮(유익현궁) 높디란 묘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滄桑累遷(창상누천) 상전벽해 되듯 세상이 누차 변해도 宰樹尙青(재수상청) 무덤 주위 나무는 아직도 푸르니 豈非餘蔭(기비여음) 어찌 남겨주신 음덕이 아니겠습니까 有孚神靈(유부신령) 미더운 신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眇爾遺裔(묘얼유이) 아득히 멀고 먼 이 못난 후손이 晚拜瑩域(만배영역) 늦게야 묘소에 찾아와 절을 올리며 溯源追本(소원추본) 근원을 거슬러 올라 근본을 생각하니 彌切感傷(미절감척) 더욱 간절하게 감동되고 두렵습니다 世值蔑貞(세치멸정) 바른 도를 없애버리는 세상을 만나 惴惴淵谷(취취연곡) 못과 골짜기에 임한 듯 걱정되오니 吾祖有靈(우조유령) 신령스러운 우리 할아버지께옵서서 冀垂陰鷲(冀垂陰鷲) 보살핌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능동재사 야외화장실 개축



권철환 안동중친회장(오늘쪽에서 다섯 번째)과 부산부녀회원들.

안동중친회(회장 권철환)에서는 능동재사 주차장에 설치된 야외화장실을 개축했다. 그동안 시조 태사공 춘추향제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는 참의원들은 기존의 이동식(재래식) 화장실의 심한 악취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안동중친회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동시에 개축의 필요성을 요청하여 안동권씨 능동재사 주변 화장실 개축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축공사는 4월 5일에 봉행된 춘향제 하루 전에 설치를 완료하여 춘향제 당일에는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참의원들은 꼭 필요한 일을 정말 잘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했다.

또한 능동재사 주변의 노후화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포장하는 공사도 병행한다. 공사기간은 2024년 3월 7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권철환 회장은 부산부녀회 회원들에게 화장실 개축공사에 대한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 개축한 수세식 화장실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광풍당光風堂 외손들의 외조부 사랑



광풍당(光風堂) 권공(權公)의 휘(諱)는 제가(際可, 22世)이고 자(字)는 사영(士榮)이며 호(號)는 단구(丹邱) 또는 광풍당(光風堂)이다. 복야공파조의 12세손으로 조(祖)의 휘(諱)는 樞(敎授)이고, 아버지는 善文(參議)이다. 슬하에 2남 5녀의 자녀를 두었고, 딸들은 봉화금씨(奉化琴氏), 전주유씨(全州柳氏), 의성김씨(義城金氏), 선성이씨(宣城李氏), 순흥안씨(順興安氏) 가문으로 출가하였는데, 이들 각 가문의 외손들이 60여년 전부터 계를 조직하여 외조부를 위해 위토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매년 한식날 춘향(春享)을 봉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올해(2024)도 4월 5일 오전 10시 안동시 풍산읍 노리 마감산에 위치하고 있는 광풍당 선조의 묘소에서 춘향이 봉행되었다. 친손 권두갑(權厚甲) 잔자의 장홀에 따라 조현관(외손 류민희), 아현관(친손 권백현), 종현관(외손 류경후) 헌작으로 춘향을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외손들이 주관하는 춘향이 친손들도 다수 참여하여 외손들과 친손들이 친목을 도모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음복(飲福)도 나누면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다.

또한 지난 3월 16일에는 안동시 정하동에 위치한 경북공식당에서 외손과 친손 30여명

권영창 회장 권영세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방문

권영창 대종회 회장은 3월 29일 권오상 사무총장과 권행완 편집국장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출마하는 권영세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용산)를 방문하여 선거에서 꼭 승리하여 안동권문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가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권성동 의원과 권영진 후보자는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당선을 기원하며 약간의 음료를 보내 격려했다.

선거가 끝난 후 안동권문의 당선인에게는 축하 화환을 보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능동재사 주차장 주위 이팝나무 60그루 식재

권영창 대종회 회장은 4월 26일 능동재사 주차장 주위에 이팝나무 60그루를 식재했다.

이 이팝나무 60그루는 권원수(경주, 좌운공파) 대종회 이사가 기증했다. 경주에서 안동으로 나무를 옮기는 작업은 먼저 이식하기 이틀 전부터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케서 이식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나무를 케서 뿌리를 감싸는 작업을 실시했다.

능동재사에 식재하는 날 당일은 경주에서 새벽 5시에 상차하여 출발했다. 능동재사에는 7시에 도착하여 포크레인 1대와 몰차, 인부 5명을 동원하여 오후 늦게까지 식재 작업을 끝마쳤다. 또 다음



날에는 나무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몰주기 작업도 실시했다. 권행완 편집국장